# 하나님에 눈이 멀어야 하나님에 눈뜬다

## (사무엘상 12:1~25)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눈이 멀어야 하나님께 눈 뜬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눈이 멀어야 하나님께 눈뜬다.’

‘눈이 먼다.’라는 말을 할 때는 시력을 잃는 것을 말하지만 비유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상식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했다면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혼을 한 것이고,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 하나만 보이는 바람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되어 나타나서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차지하는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독 한 가지 일에만 현실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눈이 먼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눈을 뜬다.’는 의미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눈이 멀다’와 ‘눈을 뜬다.’는 말 자체는 정반대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눈이 멀어야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 눈이 멀면 다른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멀게 될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달을 봐도 애인의 얼굴로 보이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여자를 봐도 애인의 얼굴로 보이는데 애인에 눈 뜬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돈에 눈을 뜨게 되고 돈에 눈이 뜨면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을 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돈만 보이면 만물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죠.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마음에서 한 가지만 보게 될 때에,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보게 되고, 혹은 온 세상 만물에서 그 한 가지만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잊히신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잊히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 사업과 과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잊히십니다. 자연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업을 보고 돈을 보고 남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은 잊히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눈이 멀면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보고 사업을 볼 때에도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눈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만물과 대상들에서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는데 사업하는 동안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물을 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눈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눈멀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만 보이면 만물에서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후에도 잔잔한 활동은 이어지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까지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마치 양심선언을 하는 것처럼 사무엘 자신이 누구에게서든지 속이거나 갈취하거나 압제하였음이 없음을 고백하는데 자신의 청렴결백을 선언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천지의 주재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조상 때부터 천 년에 걸쳐서 알려주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의 뒤끝이 엄청납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다시금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고집도 엄청나서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번도 시인하지를 않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심지어 밀을 거둘 때에 비를 내리게까지 합니다. 이 밀을 거두는 시기(4~6월)는 이스라엘의 건조기이기 때문에 비를 구경할 수조차 없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레를 동반한 장대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시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우레와 쏟아 붓는 비'가 비유적으로 뜻하는 바는 폭우가 쏟아지고 뇌성이 들리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잘못을 이야기하며 이런 기적을 동원하신 이유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같고 번개와 같고 폭우와 같이 강렬하게 느끼는 분이신데, 너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날까지 천 년 동안이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폭우와 우레와 번개처럼 느끼질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사무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의 현실로 느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초두에 했습니다.

우리는 돈, 건강, 자녀, 사업의 문제를 폭우처럼 현실로 느끼는데, 사무엘 당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합니다.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라고 하는데 이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눈이 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라는 말은 사무엘은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것이 아닌 하나님께 눈이 멀었다

는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실들인 돈과 자녀와 건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폭우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폭우와 같은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눈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 눈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 폭우 밑에 서 있을 때에 천지를 둘러봐도 비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사업장에 있을 때에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비처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눈뜨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실 때에도 키우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실 때에도 아버지를 보셨으며, 바리새인을 볼 때에도 아버지를 보시며 아버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느끼셨고, 빌라도를 볼 때에도 아버지를 보시며 그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아셨는데 만물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 아버지는 번개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천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 외에는 들리는 것이 없었고, 폭우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느끼셨는데 아버지만이 현실이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 눈이 멀었기 때문이고 만물에서 아버지에 대해 현실로 눈이 뜨이셨던 것인데 오늘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눈이 멀 수 있을까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책이 사무엘로 넘겨졌을 때 엘리 가문의 문제는 제사의 대표인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눈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마음의 시선이 죽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면 마음의 시선의 활로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따라 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상관없이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고 하나님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14: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 눈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므로 하나님께 눈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눈 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 가정에서 자녀와 만날 때, 원수를 만날 때, 자연을 볼 때도 만물에서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눈 뜨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십니다. 매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멀고 하나님께 눈 뜰 때에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현실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안에서 나를 장갑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멀어야 하나님께 눈 떠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업과 터전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은혜 넘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눈멀고 하나님께 눈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